

지역 매 아리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오늘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제차 본회의에서 조상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황토현전승일 지정 기념 조형물을 설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조형물인 미국 자유의 여신상, 브라질 예수상, 프랑스 에펠탑과 개선문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동학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어 황해속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구도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읍문화원 시내중심 신축'을 통해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연지동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연지아트홀, 여성문화원, 정읍 CGV 등과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도심내 적정부지를 찾아 정읍문화원 신축을 제안했다.

또한, 정상섭 의원은 '정읍시립박물관, 정읍생활사박물관으로 확장해야'라는 5분 자유발언에서 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이 많지 않은 시립박물관은 향후 특화된 정읍생활사의 전시와 체험을 통해 교육과 즐거움을 주는 오감(시·청·후·미·촉각)만족 공간으로 조선왕조실록실, 민족종교실, 민속산업실, 정읍문화재협실 등 콘텐츠를 만들어 박물관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중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공무직근로자 직종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표준임금체계모델(안) 지역으로 임시적 조치가기는 하나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호봉제 전환을 고려하고 ▶동일·유사한 업무는 동일임금 적용 ▶호봉제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을 3개에서 2개로 줄여 임금의 불균등이 해소되도록 제안했다.

이어 2019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황해속 대표위원, 김정식, 김용진, 김성수, 정일환 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승범, 기사재, 박일, 이남희, 고경윤, 김중희, 이상길, 황해속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오) 소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제차 본회의를 산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9일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2일 의원연찬회를 실시하고, 25~26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27~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3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을 의결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안전한 정읍 만들기 '박차'

정읍시, 군·농어촌 도로망 확충... 42억원 투입 17개 노선 9.2km 확·포장

정읍시가 올해 42억원을 투입해 군·농어촌도로 17개 노선 9.2km를 확·포장한다.

시는 군도 6개 노선 2.1km,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7.1km를 확·포장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관청~주산선(군도 4호) △승부~반곡선(군도 8호) △마태~입점선(군도11호) △상산~선동선(군도12호) △진흥~오주선(군도 13호) △육리~상서선(군도20호)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상두선(신태인309호) △신평선(신태인311호) △분덕선(태인305호) △초수

선(정우106호) △두다선(덕천315호) △만수선(고부206호) △용흥선(고부311호) △은학선(영원208호) △신평선(영원305호) △소학선(감곡106호) △평상선(감곡210호)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소~하모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국비 444억원과 시비 85억원 등 총 529억원이 투입돼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착공돼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해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책현안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신태인 간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가 지난 2016년 한국철도시

설공단과 협약 체결해 추진 중에 있다. 국비 35억원과 시비 86억원 등 총 121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7년 10월 착공돼 2020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호남선 철도하부 통과 박스 개설 중에 있다.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신태인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민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점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글마루작은도서관이 지난 16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주민의 사랑방 역할 '톡톡'

글마루작은도서관 개관 10주년 행사 큰 호응 동아리 작품전시회 · 중고 나눔장터 · 염색체험 등

고창군 글마루작은도서관이 지난 16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동아리 작품전시 ▲중고물품 나눔장터 ▲체험한마당으로 꾸며졌다. 글마루작은도서관은 고창 지역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번에도 선운목회를 비롯해 캘리그라피, 한지공예 작품, 어린이 과학놀이 활동작품 등이 전시됐다. 또 나눔마당은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중고 책과 중고 물품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성황을 이뤘다.

고창군의 지원을 받아 행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마루작은도서관은 2009년 3월 개관을 책을 매개체로 한 지역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아왔다.

올해도 독서골든벨, 어린이 도서관교육, 동화 함께 읽기, 영어로 읽는 동화 등의 독서 프로그램과 주산 수리샘 교실 등의 학습프로그램, 서예교실, POP&캘리그라피 등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노을감자 첫 수확 '현장행정'

부안군의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은 황금빛깔 영암당어리 부안노을감자가 18일 첫 수확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본격적으로 수확될 예정이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시설감자 첫 수확을 맞아 계화면 김기홍씨 감자재배 농가의 감자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가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김기홍씨를 비롯한 계화면 감자재배농원 10여명과 함께 박스 개설 등에 대해 이야기와 원료되던 신태인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민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점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노을감자는 올해 동진감을 주년으로 2630톤(263ha)의 대규모 시설하우스에서 550톤이 수확될 예정이며 110여명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부안노을감자는 감자재배에 적합한 알칼리성 사질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감자로 맛이 뛰어나며 껍질이 얇고 저장성이 좋다.

성분분석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인, 칼륨, 철분 등 무기질 함량이 높아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칼륨 성분이 높아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해 혈압유지관리에 효과가 있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부안면 이영에 어르신 100세 마을 큰잔치 열어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16일 2년째 부안면 반동마을 이영에 여사의 100세 마을잔치를 열었다. 고창군은 역경의 100년 세월을 이겨낸 장수어른들을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기리고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이날 잔치를 위해 특별히 초대된 흥덕어린이집 원아들은 신나는 트롯댄스를 공연했고, 고창문화예술인협회 이현곤 선생이 100세 기념 그림을 선물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100세 어르신 29분이 생존해 있다. 고창군은 앞으로 100세(천수, 상수)를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는 큰 의미를 되새려 마을 잔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군 경로복지팀 최선임 팀장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나눔과 봉사, 재능기부가 이루어져 인심과 정이 살아있는 고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가축분뇨 액비 살포 지도 특별점검 실시

정읍시가 본격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기를 맞아 액비 살포 지도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2명 1개조로 특별근무팀을 편성해 4월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지역 내 액비 살포 지역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특별근무팀은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의 시비 처방전 소지 여부와 외부 유출 부속도(廢熱度) 판정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적정한 로터리 작업 여부, 농수로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부속된 액비를 살포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냄새가 심하지 않던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 간 다툼이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기준에 맞는 액비 살포를 독려·지도하고 폭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외식업소 영업주 대상 친절 결의대회 가져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15일 청소년 수련관 녹두 홀에서 '스마일(smile)정읍, 클린(clean) 정읍'을 위한 친절·위생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날 열린 제54회 한국외식업 중앙회 전북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읍시지부 대의원과 외식업 영업주들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2019~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위생환경과 좋은 식단을 제공해 음식문화를 개선

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 친절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정읍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합작 캠페인과 종사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정읍을 스텝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Mulberry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descriptions.